

# 現代 東洋畫의 實驗的 研究

教授 徐 世 鈺

## 一. 緒 言

지금까지의 東洋의 繪畫는 오랜 歷史의 흐름과 風土의 特質에 따라서 자못 여러가지의 사상적 遍歷과 樣式的 起床이 있었으나 그思想의 基調와 樣式的 變遷은 하나의 흐름 속에서 生成되고 定立되고 發展되어 왔다.

가령 理想的, 象徵的, 表現的, 印象的, 律動的 또는 平面的인 手法으로 作家外의 事象, 즉 客觀的 描法에 依한 自然——現實의 諸問題와 作家內의 心象, 즉 主觀的 描法에 依한 觀念——超現實의 諸問題, 그리고 또 物, 我 未辨의 世界를 表現하고 創造한 것이 그것이다.

때문에 크게 보아서 西洋의 경우와는 극히 대조적이면 나아가서 우리의 傳統繪畫는 中國의 濫觴과 日本의 纖弱과 또는 中央亞細亞諸地域——南蠻美術의 浮華와는 다른 獨창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하며 왔다.

이러한 우리의 우수한 전통회화의 올바른 繼承과 오늘의 새로운 時代精神에 依한 새로운 창조적 실험과 노력은 당연한 課題이다.

더구나 오늘날 급진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世界的으로 同化와 同時性은 더욱 加速化하고 있어 風土樣式이나 民族樣式 또는 時代樣式까지도 劃一化되는 現象은 그릇되게 價值의 倒錯를 낳고 있다.

본 연구는 올바른 전통회화에 대한 點檢을 通過하여 새로운 實驗적 作品의 製作으로써 評實한 방향 提示를 試圖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實驗製作된 作品들은 그 主題와 技法과 精神에 있어서 多樣한 선택과 새로운 實驗 그리고 스스로의 創造的熱情에 依하여 努力하여 본 것이다.

## 二. 作品圖版解說

### 1. 鄭 牧

鄉土的 風物을 主題로 간결한 構成에 依하여抒情的表現과 象徵的 效果를 試圖했다. 客觀과 主觀의 調和와 技法에 있어서 淡明한 設形, 奔放한 筆意, 그리고 높은 精神的 格調를 具顯하려 하였다.

### 2. 候 鳥

太陽을 向하여 群飛하는 候鳥를 主題로 했다. 筆勢의 奔放, 激墨의 濃淡, 設形의 簡明, 이리한 技法의 表現에 依하여 강렬한 內面的呼訴를 試圖하였다.

### 3. 仙 鄉

동양山水描法의 絶對境은 描寫對境이 可視的 風景이지만 理想이나 幼想의 世界로 昇華케 한다. 澄明한 青色調와 輕快한 筆意로써 表現하여 보았다.

### 4. 青山駄經

傳說에 依한 主題다. 상징적이고 표현적인 世界를 提示하려고 試圖했다. 對象에 對한 省略과 謔張 그리고 歪曲은 外面의 自然에 對한 客觀의 描寫技法과는 다른 衝動의 美的快感과 새로운 美的秩序를 창조하는 契機가 된다.

### 5. 草 事

現實的對境에서 現實以外의 世界로 밝고 넘어서는 것은 이른바 「居塵出塵」의 境이다. 그것은 무지개처럼 玲瓏하고 황홀한 「想」과 「境」의 一致이다. 減筆에 依하여 直截的으로 試圖한 寓意의 表現言語인 것이다.

### 6. 長 生

古典에 대한 再發見과 評價, 그리고 새로운 承繼는 중요한 課題의 하나이다.

이러한 試圖는 持續的인 脈絡을 의미하며 또 한 絶對美는 언제나 清新한 것임을 開眼하게 된다.

### 7. 雙 韻

愛情과 直觀으로 對象을 把握하고 自由로운 筆意와 간결한 구성을 試圖하였다.

### 8. 長 生

보편적이고 究極의인 人間의 念願은 永遠에 對한 동경——그것은 곧 長生을 의미한다. 假令無邊한 宇宙의 空間에는 日月과星辰이 펼쳐져 있다. 그것은 하나의 記號와 같다. 어떤 假想은 하나의 「點」을 胚胎하고 그하나의 點에서 끝없이 演釋되다가 다시 그하나의 「原點」으로 歸納되기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구태여 自然이라고 해도 좋고 아닌것이라고 해도 좋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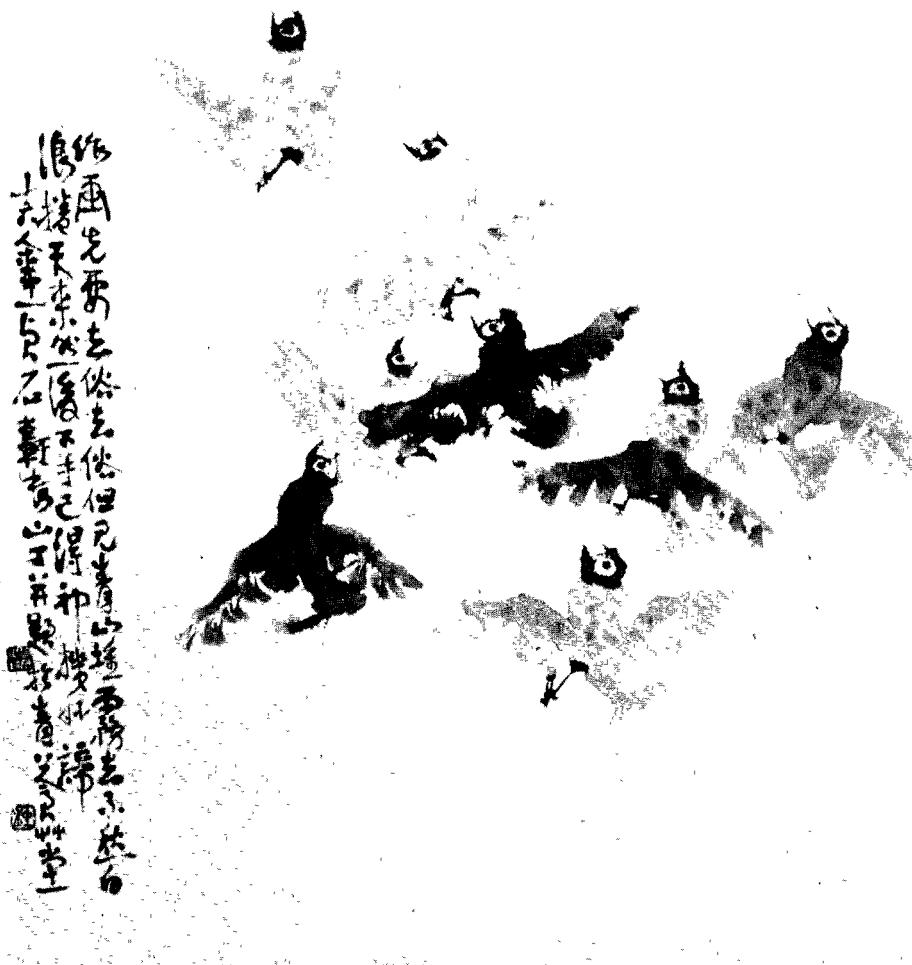
## 三. 結 言

무릇 참된 창조의 아름다움은 一時의으로 明滅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어느 地域이나 種族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成立된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超克하는 것이다. 時流를 타고 浮沈하거나 아무런 生命의 感動도 없이 지난날의 形式的殘骸만을 墨守하는 따위는 창조의 창조의 본질일수가 없다. 진실되고 絶對의 아름다움은褪色되지 않는 것이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그렇기때문에 美의 典型은 可變할지라도 眞實되고 絶對의 境은 움직일수없이 영원한 것이며 그것을 가꾸고 지키기 위하여는 항상 쉬지않고 실험적모색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언제나 그러한 노력은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주는 까닭인 것이다.



歸牧



候鳥

丁巳夏記於吉金自古無一例水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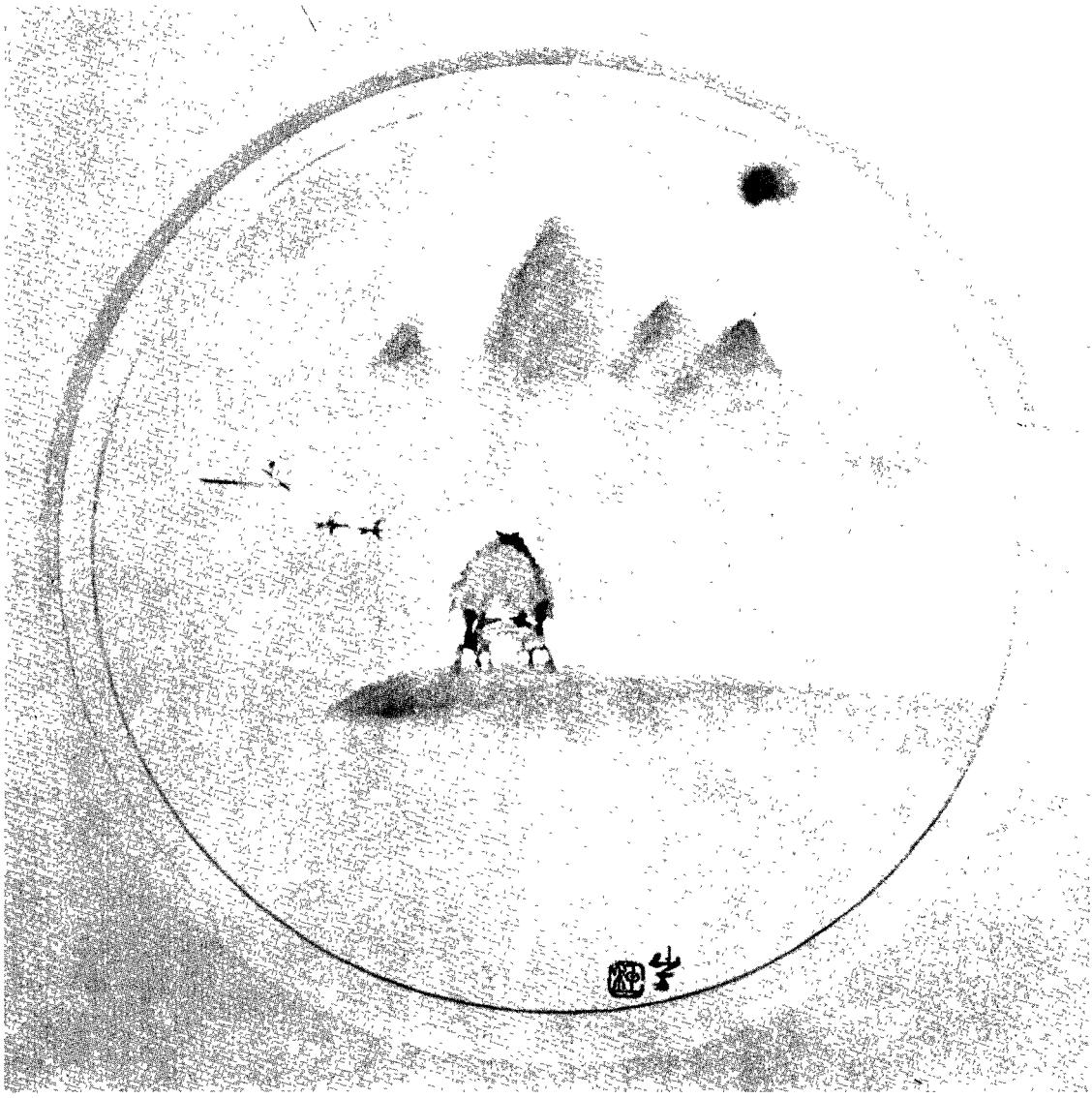
仙鄉



青牛駄經



青牛駄經



草亭



長生



雙鷄

